

1. 최근의 배합사료 가격동향

지난해 상반기 이후 곡물가격과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해 오던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곡물가격과 선임시세가 안정되고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 오고 있다. 이같은 요인들로인해 지난해 12월말부터 년초에 걸쳐 사료업계에서는 평균 3.5%의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하기에 이르렀고 아직도 양축농가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양돈협회를 비롯한 일부 축산단체에서는 곡물가격과 환율 인하가 배합사료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료가격연동제를 요구하고 나왔고, 배합사료업계에서는 현재의 사료가격제도는 자율적인



김치영 부장
한국사료협회 총무기획부

2005년도 하반기 배합사료 가격전망

시장경쟁제도로 60여개의 사료회사들이 곡물가격과 환율 시세에 따라 수시로 가격조정을 해나가고 있으며, 사료가격연동제는 과거 60~70년대의 고시가격제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현재의 가격제도하에서 품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려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곡물가격과 환율하락은 배합사료 가격에 꾸준히 반영되어 연초 3.5%의 공식적인 가격인하를 한 이후에도 일부 할인 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농협이 전체 농협사료 가운데 58.1%를 차지하는 낙농·비육우 사료에 대해 4~5월 한시적으로 2.0%를 할인판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같은 입장을 놓고 볼 때 현재의 배합사료가격은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다소 불만이지만 업계의 입장에서선 이미 원료비 변동과 환율변동에 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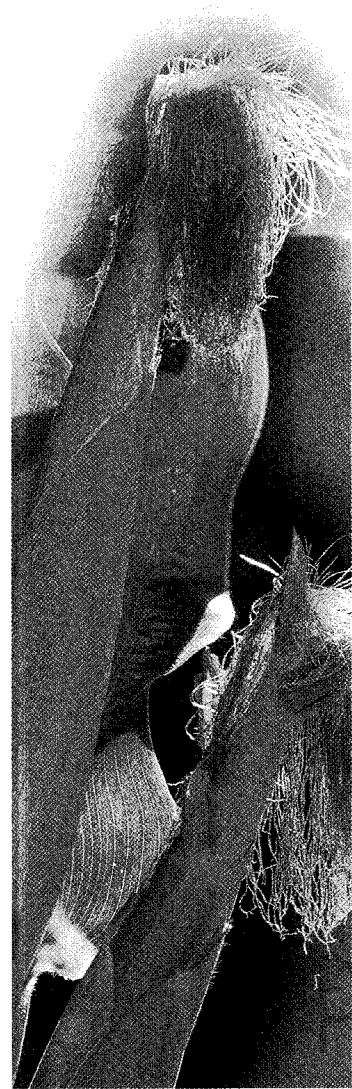
〈표 1〉 환율동향

구 분	2005. 2(A)	2005. 3. 30(B)	변동율(% , B/A)	비 고
원/US\$	1022.69	1023.60	100.09	수출채산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환정책 개입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판단임.

인하요인을 모두 반영시켜 추가적인 인하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향후 환율 상승과 선임 및 곡가 상승에 따른 원료비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합사료 제조비용중 원재료비 비중이 80.8%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원료의 사용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율의 경우 1%가 인하되면 0.6%의 배합사료 가격인하 요인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말 1,051원이었던 환율이 금년 2월에 1,022원으로 하락하면서 환율이 2.7%인하 했고 이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인하 요인은 1.63%가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다 원료가격 변화에 따른 사료생산비용의 인하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인하요인은 3.5%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사료업계의 주장이다.

아무튼 사료가격을 놓고 이같은 축산 및 사료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말부터 사료가격이 안정되고 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면서 사료회사들은 고전을 면치못했으나 양축농가들은 근래 보기드문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선 향후 하반기이후 축산물 가격과 사료가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양축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배합사료 가격전망

현재 축산물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인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료가격은 당분간 현 가격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향후 곡물가격의 경우 이미 구매된 사료 원료 가격들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당분간 현 가격수준에서 주요 곡물가격들이 안정을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주곡인 옥수수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옥수수 식부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고, 식부면적도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될 전망이다. 지난달에 발표된 미국 농무성의 금년도 식부 예상면적에 따르면 지난해 식부면적에 비해 옥수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대두, 소맥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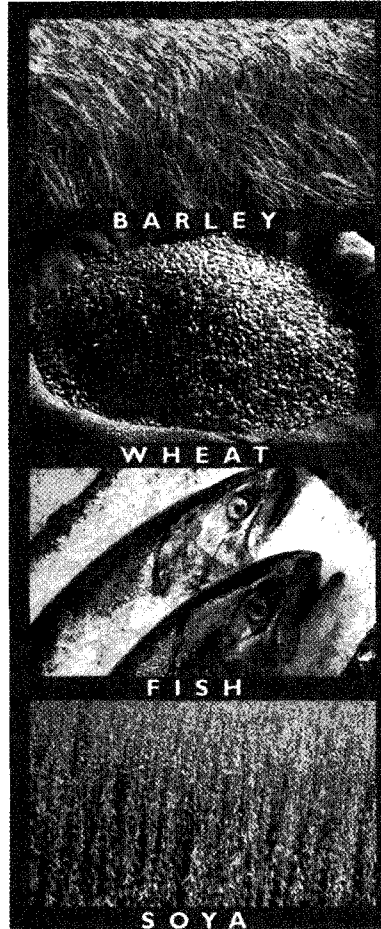
〈표 2〉 원료가격동향

구 분	2004. 12	2005. 2(A)	2005. 3(B)	변동률(% , B/A)
옥 수 수	146.9	146.2	148.0	1.23
소 맥	159.6	151.5	154.4	1.91
루핀시드	165.2	170.2	199.5	17.21
대 두 박	255.8	242.1	257.5	6.36
소 맥 피	124.9	124.4	127.0	2.09
채 종 박	147.5	147.5	152.5	3.39
면 실 박	163.2	148.4	158.8	7.01

※ 주 : '04. 12월, '05년 2월은 통관가격기준이며, '05년 3월은 평균구매 가격 기준임.

타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예상 평균식부 예상면적은 8,238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145만 에이커 증가함으로써 1985년이래 가장 높은 식부 면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식부면적이 예상대로 150만 에이커 이상 증가할 경우 옥수수 가격도 당분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료가격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율은 연초부터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지속으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3월 들어 평균 1불당 1,007원까지 급락했으나 최근에는 달러 가치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020원대까지 반등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현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하락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출산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환율방어에 나설 경우 오히려 환율상승으로 반전되어 배합사료 가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선임은 현재의 중국경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지속적인 원자재 수요의 증가와 신조선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당분간 강세가 지속되어 나갈 전망이다. 이미 선임시세는 2003년에 비해 25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로 당분간 이같은 가격 추세가 지속되는 한 곡물가격의 안정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주요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볼 때 하반기 이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더 이상의 추가하락은 어려울 전망이고 오히려 사료업계의 일각에서는 2005년 하반기 이후의 환율상승에 대비하여 서둘러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돈**



▲ 주요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볼 때 하반기 이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더 이상의 추가하락은 어려울 전망이다.